

# 명품 호수공원·주거단지 품고 아파트 명품이 되다



중앙공원 1지구 전체 조감도.



##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주시 새 랜드마크...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호수 품고 몰세권·숲세권·역세권 등 인프라 탁월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 조성 24~26일 청약 당첨자 발표...2027년 입주 예정

주방 세계 대표 브랜드 아크리니아 놀테 적용 욕실도 콜러·아틀라스콘코드·스틸레 제품 사용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블록 투시도.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가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을 시작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호수·공원 품은 고품격 아파트 2772세대=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구성되며, 이 중 2364세대는 일반 분양이다.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1BL(929가구, 전용면적 114㎡~233㎡) ▲2-1BL(915가구, 전용면적 121㎡~166㎡) ▲2-2BL(928가구, 전용면적 84㎡~166㎡) 등으로 조성된다.

청약은 지난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1BL, 25일 2-2BL, 26일 2-1BL이며, 정당계약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광주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최고급 명품 아파트 브랜드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최적의 입지와 우수한 인프라 등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 품앗호수공원을 품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 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프장, 정원바람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또 품앗호수를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호수백사장 등의 시설도 구축된다.

단지 인근에는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무지구에는 몰세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의 다양한 상

업시설도 들어서 있다.

학교도 우수하다. 화정남초와 화개초, 품앗고 등 도보로 통학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교통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도 가능하다.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

◇고품격 특화설계·다양한 커뮤니티 눈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롯데건설만의 고품격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가 도입된다. 세대 내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위주로 단지를 배치했으며, 일조권과 세대 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했다.

또 입주인이 단지 바로 앞에 펼쳐진 중앙공원의 전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28층에 조망권 장점을 극대화한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니어 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고급 사우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운동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입주인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특히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유럽산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주차난을 해소할 정도로 넉넉한 주차공간도 장점이다.

더불어 한 가구당 약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총 5358대 주차공간을 구축했으며,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1960대의 주차공간을 확장형 형태로 계획했다. 여기에 레저용품이나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현관 앞 세대창고를 제공해 주거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광주 최초 입주인 감동 명품 마감재 적용=롯데건설은 아파트 내부에도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를 적용한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를 비롯한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을 통해 꾸며진다. 욕실은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함께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콘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 시 이러한 세계 명품 마감재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광주에서 가장 큰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입주인들이 그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고 특화설계에 공을 들였다"며 "뛰어난 녹지 환경에 편리한 인프라까지 갖춘 숲세권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품앗동 일대 243만 5027㎡ 부지 내에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광주 최대의 도심 공원 조성 프로젝트다. 뛰어난 풍경을 품고 있는 품앗호수를 중심으로 어울림 숲과 청년의 숲, 치유의 숲, 우듬지 숲, 예방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기록의 숲 등 8개 테마별 도심 숲 공원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블록 투시도.